

■ 6·4 재보선 현장 누가 뭐나

광주시의원(남구 1선거구)

“원인 제공자” 비난 불구 강도석 또 출마

민주 김선문, 선진 서의환, 민노 이승기씨 등 4파전

“선거가 장난이나” 시민 분개...유권자 극도의 무관심

오는 4일 치러지는 광주시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주 남구 양립동·월산동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출마 후보자들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또다시 출마했다는 비난 여론이 이어지는가 하면 비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이 잇따르면 ‘선거판을 돌아보지조차 싫다’는 유권자들의 반응도 드러나고 있었다.

광주시 남구 1선거구는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선문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자유선진당의 서의환 전 동양가스 대표, 민주노동당의 이승기 공공도서관 프르미관장, 무소속

강도석 전 시의원 등 모두 4명이 표발을 누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별한 정책적 이슈나 쟁점이 없는데다 20% 이하의 극히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되면서 조직력을 갖춘 민주당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새벽부터 청소 환경 미화원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밤 늦게까지 주민들과 만나 양립동, 사직동 등

전 후보는 ‘광주~오송간 호남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등 다양한 공약을 내걸고 주민들을 접촉하고 있다.

민주당 이승기 후보는 “광주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시의회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닌 민노당 소속 의원도 필요하다”는 견제론을 내세우며 바다

■ 광주시의원(남구 1선거구)

이름	김선문	서의환	이승기	강도석
나이	47	61	30	53
소속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경력	전 새천년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전 동양가스 대표	공공도서관 프르미관장	전 광주시의회 의원

속철도 건설 일정을 현재보다 2년 조기 개통시키고,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어울리는 위상을 갖도록 하겠다’는 거창한 공약을 내걸고 주민들을 접촉하고 있다.

민주당 이승기 후보는 “광주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시의회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닌 민노당 소속 의원도 필요하다”는 견제론을 내세우며 바다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시의원 사퇴 후 또다시 출마,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강도석 전 시의원은 유권자와의 신뢰를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3억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4·9 총선 때 내놓았던 공약을 그대로 제시하고 유권자들을 찾고 있다.

현재 5부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지만 카풀제는 아직도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카풀제를 독려하고

초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선택 아닌 필수

6 지자체가 출수범해

공무원들은 정작 대중교통 외면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5부제를 공무원이 준수하는 것으로는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수년째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실태를 지켜봐 온 광주환경운동연합 김광훈 사업국장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에너지 절약 운동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현재와 같이 천정부지로 기름값이 치솟는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선연적인 에너지 절약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 사회의 인식전환은 물론 출수범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주시의 경우 직원 전용 주차장이 400개에 달하지만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는 빼곡히 들어찬 차들로 인해 연일 만원을 이루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의 경우 최근 ‘범구민 자전거 타기 운동’ 확산을 위해 먼저 ‘공직자 자전거타기 운동 발대식’을 가져 호응을 얻고 있다.

청사에 인접한 곳에 사는 공무원 30여명이 자전거 출퇴근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120대를 주민 전

있지만 적잖은 수의 공무원들이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펼치고 있는 ‘실내조명 격등과 창가조명 소등’, ‘승강기 홀·착승 운행’, ‘점심시간 컴퓨터와 전등 소등’, ‘냉·난방 온도 준수’ 등 에너지 절약운동이 매년 걸돌고 있다.

시민들은 새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상 비교는 결말이 없지만 서울시의 경우 이미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 건축물 신속시 취

적용 사례를 면제해주고 있다. 대다수가 나트륨 등(燈)인 전남 지역 보안등을 전력 소비량이 적은 LED 등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전남지역의 보안등은 총 11만5천 개로 이를 모두 LED등으로 교체할 경우 연간 41억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일반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경우 1개당 17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 총 198억원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끝〉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카풀제 ‘실내온도 준수’ ‘전등 끄기’ 등 매년 걸돌아

전남지역 보안등 LED로 교체 땀 연간 41억원 절약

정치권 6·4 재보선 관심 고조

한나라 ‘쇠고기 정국’ 애써 외면 민주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4·9 총선 이후 처음 치러지는 6·4 재·보궐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지 두달밖에 안 된 상황이지만 ‘쇠고기 정국’ 민심의 현주소와 국정운영의 성적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번 재보선이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을 뽑는 미니선거라는 점에서 애써 외면하는 듯한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25곳, 기초의원 11곳 등 모두 42곳에 후보를 냈지만 중앙당이 직접 지원에 나서지는 대신 시도당 위주로 선거자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달 31일 인천 서구청장 보궐선거운동 유세현장에서 민주당 이훈국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 100일을 맞아 치러지는 데다 ‘쇠고기 고시’ 강행에 따른 민심 악화로 여론이 악화될 경우 재보선 결과가 현 정부의 취임 초 중간평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이 이명박 정부의 100일 국정

운영의 평가로 규정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수도권 단체장 선거에서 선거초반 한나라당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자, 당 지도부가 나서 수도권 공략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孫-鄭 지역구 터 댄나 각각 지역위원장 맡아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4·9 총선 출마지었던 서울 종로, 동작구의 지역위원장을 수락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차기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터 댄기’ 차원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손 대표와 정 전 장관은 “4년 뒤 행보를 미리 장담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일단 지역구 관리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 측은 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직접 출마한 이상 지역 관리를 하는 게 지역주민에게도 당연한 도리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손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 미래재단’이 최근 서대문구에서 종로구 견지동 천마빌딩으로 이사한 것을 놓고 훗날을 대비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추측이 돌기도 했다. /연합뉴스

靑 참모들도 촛불집회 암행 참가

민정·정무 비서들 “예상보다 민심 심각”

“촛불집회 현장에 나가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청와대 고위급 참모들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계에 반대하는 촛불집회 현장에 직접 나가 ‘민심탐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반성하고 민의를 읽기 위한 차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최근 일부 수석과 비서관들이 직접 촛불 집회를 찾아 민심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민정, 정무수

석실 직원들이 매일 밤에는 현장 점검과는 다른 차원으로,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3박4일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달 30일 밤 다른 수석비서관들과는 달리 청와대 관저에 나타나지 않았다.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그 전날에도 집회 현장을 찾았던 광 수석은 지난달 30일 오후 정

부 당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 확정을 발표하면서 최대 규모의 인원이 모일 것이라는 보고를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언론을 통해 비교적 얼굴이 많이 알려진 광 수석은 민약의 불상사에 대비해 모자를 눌러 쓰고 안경을 쓰는 등 ‘변장’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이종찬 민정수석은 ‘새벽암행’을 통해 집회 민심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새벽 3시 30분까지 현장을 둘러본 이 수석은 지난 29일에도 새벽 2시경 가두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도심을 찾았다. /연합뉴스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

수세기소라·세계보청기

1588-8400 / 02-722-0100

10255300-9999